



"칠십 노인 구 대 독자 생남을 한 듯"

뜻: 나이가 아주 많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사람이 귀하게 아들을 낳았을 때처럼,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기쁨 · 환희 · 감격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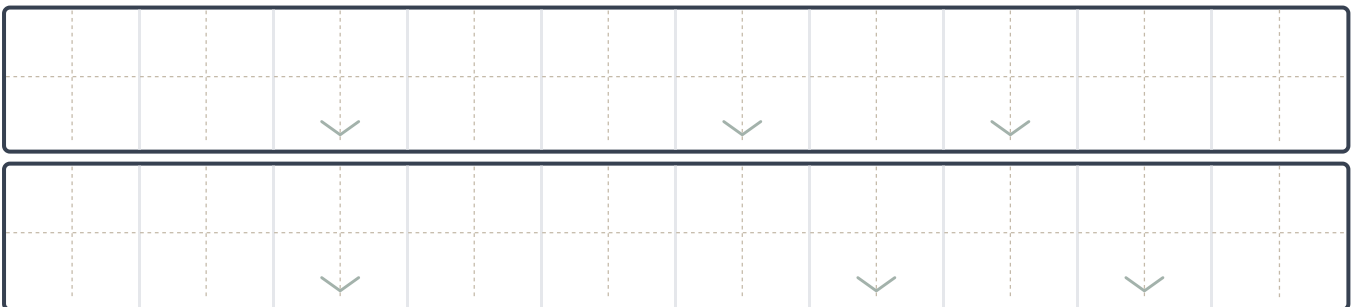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ㅈㅅ] [ㄴㅇ] [ㄱ] [ㄷ] [ㄷㅈ] [ㅅㄴㅇ] [ㅎ] [ㄷ]

웹에서 보기

